

임효성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제11대 충북지역본부의장 취임

박상철 기자 | 승인 2025.04.14 15:30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10대 장장섭 의장 이임식과 11대 임효성 의장 취임식을 개최했다./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임효성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11대 의장으로 취임했다.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1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10대 장장섭 의장 이임식과 11대 임효성 의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새로 취임한 임효성 의장은 "조합원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권익 보호는 물론, 소통과 상생의 노조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현수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본부장은 "노동조합은 조직의 든든한 파트너"이며 "상생과 존중 문화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이끌어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이·취임식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조합원과 연대, 현장중심 소통, 협력적 노사문화를 기반으로 한단계 더 도약 할 것을 다짐했다.

